

워크숍 3 (최대 50 명)

종교를 초월한 우정

“Friendships Beyond Religious Identities”

말리아 도미니카 웡(Malia Dominica Wong), 까르마 렉쉐 쓰모(Karma Lekshe Tsomo) / 번역 김은희

요약문:

이 워크숍은 참가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정과 종교적 정체성을 탐구하도록 한다. 참가자들은 알아차림을 유지하면서 워크숍 설명을 들은 후 짝을 이루어 “친구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라는 질문을 숙고해 본다. 그 다음은 “종교적 정체성의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숙고할 것이다. 그런 다음 그룹 전체에서 두 가지 추가 질문에 대해 토론할 것이다.

- (1) 종교를 가진 사람들 사이의 우정과 일반 친구와의 우정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 (2)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과 친구가 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이며 이를 지혜롭게 해결할 방법은 무엇인가?

그 다음 참가자들은 타종교 간 우정에 대해 각자가 경험한 중요한 부분을 전체 그룹과 공유한다. 워크숍은 자비명상과 호흡명상을 한 후 끝난다.

발표자 이력:

말리아 도미니카 웡 (Malia Dominica Wong, O.P.(O.P.도미니코수도회 소속 설교자들의 수도회)): 호놀룰루 샴이나드 대학의 종교 연구 부서의 선임 강사이자 BDK(Bukkyo Dendo Kyokai/붓교 덴도 교카이 불교전도협회)- 후지타니 인터페이스 프로그램(Fujitani Interfaith Program)의 책임자다. 2000 년 창조영성대학(University of Creation Spirituality)에서 서로의 종교에서 배우는 수행 방법(The Gastronomics of Learning From Each Other: Parallels in Spiritual Practices)’이라는 논문으로 목회학 박사 학위’(D.Min)를 받았다. 1986 년부터 불교-기독교 수행에 참여했으며 모든 종교와 종파의 사람들 사이에 화합의 다리를 건설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까르마 렉쉐 쓰모(Karma Lekshe Tsomo)스님: 샌디에고 대학의 신학 및 종교 연구교수로 불교 사상과 문화, 불교와 여성, 깨달음의 이미지, 죽음의 과정, 죽음, 사회 정의와 같은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연구 관심분야로는 불교페미니즘 철학, 불교와 생명윤리, 종교윤리비교, 국가주의를 초월한 불교, 불교사회이론 등이 있다. 스님은 샤카디타(Sakyadhita)의 설립자이자 전회장이고 개발 도상국의 여성 교육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인 잠양재단(Jamyang Foundation)의 설립자이다. 저서로는 ‘불교에서의 여성’, ‘죽음의 신, 야마의 입속으로;

불교, 생명윤리, 그리고 죽음’, ‘홀로 수행하는 비구니들: 여성 수행자를 위한 사찰 윤리의 두 전통’ 그리고 불교 여성에 대한 수많은 편집된 저서들이 있다.